

# **LB INVESTMENT**

**Fall 2010**

# COMPANY NEWS

## LB인베스트먼트, 창투사평가 A+

중소기업청이 2010년 81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LB인베스트먼트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창투사로써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LB인베스트먼트는 조합결성운용성과, 운용인력,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등 주요 평가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최우수 등급의 평가는 올해부터 창투사 규모에 따라 평가 기준이 이원화되고, 새로운 평가기준의 도입, 기존 평가기준의 강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년 연속 A등급의 영예를 이어가게 되어 명실상부한 최우수 창투회사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LB인베스트먼트, 아이덴티티게임즈에 투자하여 높은수익 거둬..

中 산다, 아이덴티티게임즈 경영권 9500만불에 인수  
독립경영 및 개발권 보장키로 합의

중국 2위 게임업체인 산다게임즈가 국내 게임개발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이하 아이덴티티)를 인수했다. 산다는 아이덴티티를 놓고 NHN,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산다는 9500만 달러(한화 약 1113억원)에 아이덴티티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9500만 달러는 산다가 지난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할 때 지불한 9165만 달러보다도 많은 규모다. 인수 이후에도 아이덴티티는 독립경영권과 개발권을 보장 받게 된다. 산다는 아이덴티티의 대표작 '드래곤네스트'의 중국 퍼블리싱 업체다. 드래곤네스트가 중국에서 동시접속자 70만명을 기록하는 등 성적이 좋고 아이덴티티의 향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업체인 텐센트가 최근 한국게임인 '던전앤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를 앞세워 중국 게임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이덴티티게임즈 이은상 대표는 "산다는 드래곤네스트에 100억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는 등 강한 신뢰를 보여줬다"며 "향후 산다와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종합 퍼블리셔와 신망 있는 개발사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덴티티는 지난 2007년 웹젠과 판타그램 출신들이 주축을 이뤄 설립됐다. 액션MORPG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은 국내에서 넥슨을 통해 서비스 중이며, 일본에서는 NHN재팬이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0-09-09]

\*당사는 국민연금12호 조합에서 2회에 걸쳐 총30억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둔바 있다.

# NEW PORTFOLIO

회 사 명 : 하이즈항공  
홈페이지 : www.hizeaero.com  
대표이사 : 하상헌  
설 립 일 : 2001년 11 월  
사업분야 : 항공부품 제조

경남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즈항공(주)은 항공기 부품 조립 가공, Tool 제조업체로서, 2001년에 설립되었다.

보잉 717 주익조립, F16, KSRⅡ 등 민항기 및 군용기 부품 조립/개조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미국 Boeing사의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서 'Dreamliner'라고 명명된 B787의 주날개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한국 및 미국 공군의 대잠초계기인 P3 개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NADCAP 무결점 통과 인증, AS9100 인증 등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 기체 조립 및 개조정비 사업 외에 항공부품, 치공구 (Tools) 생산 등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상반기에는 미국 보잉사의 MRO부문 1차벤더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항공부품업체 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회 사 명 : 스타코주식회사  
홈페이지 : www.staco.co.kr  
대표이사 : 이동형/홍순건  
설 립 일 : 1991년 1월  
사업분야 : 선박용 내장품인 Wall Panel, Ceiling Panel 등  
육상과 해상 주거시설 제조/설치

스타코는 1991년에 설립되어 부산 녹산공단, 울산 전남 대불공단에서 조선기자재인 Wall Panel, Ceiling Panel, Unit Toilet 등 제조하는 업체이다. 2009년 매출 1400억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년도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다

주요거래처로는 국내 메이저 조선소와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중동, 중남미 등 다변화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와 일본시장은 국내 업체와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장기항과 대련 페기물처리업체인 그린필드, 그리고 그 외 4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조선중심의 매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신사업으로 육상주거시설, 연 제품개발과 영업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또한 기존 여객선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호화 크루즈선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회 사 명 : 아이텍반도체  
홈페이지 : www.iteksemi.com  
대표이사 : 유남영  
설 립 일 : 2005년 2월  
사업분야 :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텍반도체(주)는 반도체 후가공 분야에서 테스트 서비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반도체의 양품/불량을 선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는 빠른 테스트 개발 능력/유연하며 우수한 생산 프로세스 등을 기반으로 고객사인 Fabless 반도체 회사들과 제품 초기부터 공동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상위 Fabless 반도체 개발사 중 60%이상인 회사 고객이다.

아이텍반도체(주)는 2010년 10월 26일 코스닥 상장 하였다

회 사 명 : 아이엠텍  
홈페이지 : www.im-tech.com  
대표이사 : 이재석  
설 립 일 : 2000년 12월  
사업분야 : 세라믹 전자부품

아이엠텍 (IM Tech)은 탑엔지니어링 자회사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및 자동차 전장용 LTCC module 및 반도체 MEMS Probe용 MLC Space Transformer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재석 대표를 비롯한 주요 개발, 운영인력은 LG 반도체 및 탑엔지니어링 출신으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들이 모여 2000년에 동사를 출범시켰다.

이동통신 단말기용 RF 모듈은 중국지역 단말 제조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한 MLC Space Transformer는 기존 수입 일본제품 대비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NEW FACE

하고싶은 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난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남기고 전직장을 나와, 마침내 LB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 정경인 (KyungIn Jung)

생년월일: 1980년 8월 11일

가족사항: 부모님 시집간 누나

태어난 곳: 뉴욕 (태어나기만, 반년 만에 한국 왔습니다. Native English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살았던 곳: 서울

사는 곳: 역삼동

학력: 서울대 재료공학부 졸업 (방통대 일본학과 졸업 - 졸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력: 태산LCD - BLU연구소 연구원 3년, Hewlett-Packard - 마케팅 3년

취미: 워닝일레븐, 스크린골프

성격: 신중한척하는 몽상가

버릇: 상상하기 (사업아이템, 영화시나리오)

혈액형: B형 (착한남자임)

종교: 기독교

애인: 없음

주량: 소주 반 병 (안타깝게도 술 잘드시는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결핍됨)

별명: 돌핀(초음파소리를 잘내서), 스누피, 구피(뺨아서)

좋아하는 여성상: 외모는 김민희, 성격은 태연 같은 여자

좋아하는 음식: 새우튀김

좋아하는 음악: Hip-Hop, R&B, Jazz, Electronica, J-Pop, Girl Group 가요

좋아하는 연예인: 김민희 (똑순이 아님), 소녀시대 태연

좌우명: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 LBI ACTIVITY

## 인왕산 등반

11월 6일 LBI 임직원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사내 등반 문화행사가 있었다. 등반 코스로는 사직공원-인왕산길-창의문-숙정문-삼청공원 까지의 장장 4시간이 소요되는 성곽 둘레길 코스를 택했다.

안개가 짙게 끼어 탁 트인 하늘과 땅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인왕산 성곽길에서 서울 성곽의 운치를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사직공원에서 경사가 급한 인왕산길을 30분 정도 오르는 길에 기암괴석과 함께 성곽의 장중한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가볍게 생각하고 등산화조차 준비하지 않은 임직원들도 다수 있었는데, 가파른 돌계단 덕분에 꽤나 고생을 하기도 했다. 창의문 입구에서는,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으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 백명의 등산객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인왕산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이것을 핑계 삼아 계획을 다소 변경하여, 광화문-삼청동길을 통한 산책을 하기로 하였다. 청와대 옆길을 따라 걸으며,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도 만끽하고, 임직원들은 서로 그간 못다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걷다 보니, 어느덧 삼청동 입구에 다다랐다. 미리 예약한 한정식 집에서 산행으로 허기진 배를 두부김치로 달래며, 막걸리를 한잔씩 쭈욱 들이키니, 이 맛과 기분을 어디에 견줄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다소 힘들긴 하였지만 이번 산행을 통해 사내 유대감 강화와 자신감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등반하는 것을 사내 연례 행사로 발전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몸사리는 금융지원에 신성장동력 힘쏟는다

녹색성장펀드 투자집행률도 7.7%에 그쳐

### ◆ 신산업 금융 시리즈 ◆

지식경제부는 지난해와 올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바이오 등 3개 분야에 걸쳐 7개 신성장동력 펀드를 결성했다. 지금까지 모인 액수만도 8585억원. 이 중 정부 재원은 약 1500억원이다.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IT(정보기술)특화 펀드 등이 새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하지만 운영 1년여가 지난 지금 실제 펀드 투자 실적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올해 8월까지 IT 융합, 로봇 응용, LED 분야 등에서 8개 사업에 1290억원이 투자됐을 뿐이다.

한 모태펀드 관계자는 "워낙 기술이 다양하고 회사도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을 가리기 쉽지 않다"며 "기술이 실제 상업화나 수출단계에 이른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벤처기업 관계자는 "정작 어려운 단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신산업과 금융 간에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 불었던 IT 열풍이 가라앉고 다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성장동력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이란 친환경 산업, 고부가가치 융합 산업, 지식서비스업 등 미래 먹거리 업종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에 대한 집중 육성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과 산업이 항상 이 같은 불신 악순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 경제 발전 이면에는 늘 금융이 함께했다"며 "신산업 발전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강의 기적'과 'IT 선도국'도 정부 주도 정책금융과 벤처 투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다.

19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 발전 지원을 명문화한 은행법 제정이나 외환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6개 특수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이 설립된 것도 모두 이 시기였다. 이 결과 중화학공업 성장률은 80년대 후반 평균 19.6%까지 뛰어올랐다.

2000년대 초 IT기업 열풍도 금융이 기폭제 구실을 했다. 1998~2002년 사이 IT 분야에 대한 은행 대출 증가율은 16.5%에 달한 반면 중화학공업 여신 증가율은 6%까지 떨어졌다. 지금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도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승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팀장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영본부 팀장은 "녹색인증제도와 같이 정부가 신산업을 명확히 구분 짓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면 지원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일경제 2010-09-26]

## 우량 벤처 코스닥 입성 길 넓혀야

‘총체적 위기에 빠진 코스닥 벤처 생태계를 살리자.’

코스닥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벤처 1세대이자 한때 스타종목으로 집중 조명받던 여러 상장사가 상장폐지되고 코스닥시장 역사의 한쪽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2006년 400여개를 넘어섰던 코스닥시장 벤처부 소속 상장사 수는 300개사 이하로 급감했다.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코스닥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성장벤처형 상장사마저 투자자 외면 속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코스닥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벤처 중 벤처도 외면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평가 제도로 상장한 코스닥 성장형벤처기업은 바이오니아와 크리스탈지노믹스, 이수앱지스, 바이로메드, 진매트릭스, 제넥신 등 총 6개사다.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벤처 중의 벤처’로 꼽히며 코스닥시장에 데뷔했다. 반면 현재 주가는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에 걸맞지 않은 수준. 올해 코스닥지수 등락폭(-6.6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니아의 경우 올해 초와 비교해 19.66% 하락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이수앱지스, 바이로메드도 지난 1월 4일 종가와 비교해 각각 18.46%, 23.00%, 20.54% 빠진 상태.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한 진매트릭스와 제넥신도 올해 들어 22.60%, 11.14% 내렸다.

코스닥 벤처 생태계 위기론 속에 ‘벤처 중의 벤처’로 집중 조명됐던 상장사마저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벤처 상장 활성화가 해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벤처 육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증권시장은 물론 국내 벤처업계 내부에서도 팽배하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을 낮춰 벤처기업은 물론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 상장→투자 활성화→벤처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무너진 코스닥 벤처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1016개사) 중 이노비즈기업은 400여개. 그러나 전체 이노비즈협회 등록 기업 수가 1만6200개사인 점을 감안할 때 코스닥시장 상장사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이노비즈협회 홍창우 전무는 “코스닥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량한 벤처기업들이 상장돼 거래돼야 한다”면서 “때문에 벤처기업과 함께 3년 이상의 업력과 건조한 실적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한국거래소 측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녹생기업 상장방안 난항

한국거래소도 녹색성장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 등 코스닥 벤처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해법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 “녹색성장 기업 상장 활성화가 지난 2000년 닷컴버블과 같은 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부 당국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이노비즈기업 상장 요건 완화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관련 용역을 끝낸 뒤 내부적으로는 녹색성장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면서도 “과거 닷컴버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아직 방안을 최종 확정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는 올해 2·4분기 내로 방안을 마련해 3·4분기까지는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다소 늦춰지고 있다”며 “현재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노비즈기업 상장요건 완화 방안은 정부 당국의 관련 법 개정 등 변화가 없어 아직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2010-09-30]

## 중기청 "올해 창투사 투자역량 향상"

중소기업청은 올해 81개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투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 회사들의 투자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2005년부터 창투사 경영상태와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성과 등 6개 영역에서 평가해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종합등급이 A등급 이상인 업체가 증가하고 하위 등급에 속한 업체가 줄어들었다.

A등급 이상의 우수 창투사 비중은 30.9%(25개사)로 작년보다 3.9% 포인트 상승했고 경영상태가 취약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등급보류(E등급) 업체 비중은 20.2%에서 4.9%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조합 결성이 늘어났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든 데 기인한다고 중기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아 평가가 면제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외에도 한국투자파트너스와 LB인베스트먼트, CJ창업투자 등이 올해 A+ 등급을 받았다.

중기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창투사를 수준별로 관리·감독하고 우수 창투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진흥 목적으로 조성된 모태펀드 출자시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창투사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D-E 등급 업체에는 출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0-10-28]

## 벤처캐피탈 올해 투자 1조 육박할 듯

올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벤처캐피탈사가 투자한 총 금액은 7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3분기와 4분기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올해 투자규모는 작년(8600억원) 수준을 웃돌며 1조원에 가까웠던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 규모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VC들의 4분기 투자 예상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4분기 4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스틱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도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정지영 벤처캐피탈 협회 팀장은 "벤처시장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가 9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업계 전반적으로 단일 투자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한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투자했던 예전 사례와 비교해 보면 최근 VC들의 투자 금액은 공격적이다.

최근 LB인베스트먼트가 조선기자재 업체인 스타코에 10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고,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상장사인 바이로메드 신주 인수권부사채(BW)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지난 9월 공작기계 업체인 맥스로텍에 8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단일 벤처투자 금액을 확대해 가고 있다.

채두석 LB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은 "벤처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단일 투자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고 향후 모멘텀이 확보된 기업이라면 VC들의 투자 규모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2010-11-01]



# PORTFOLIO NEWS

## EMLSI “올 기술로열티 수익만 120억”

제주도 유일 코스닥상장사...EMLSI 흥기돈 CFO 인터뷰

제주도에 있는 국내 유일의 코스닥 상장사인 팹리스(Fabless)업체 EMLSI가 올해 기술 로열티 수익으로만 120억원가량을 벌어들인다.

흥기돈 EMLSI 부사장(CFO)은 20일 경기도 분당 야탑동에 있는 계열사 램스웨이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 ‘생생코스닥’과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미 반도체 설계 관련 기술 로열티 수익으로만 120억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EMLSI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윈본드(WINBOND)에 범용 32M 시램(CRAM)과 관련된 설계를 해준 뒤 이익의 50%씩 나누는 계약을 지난 2008년 체결했고, 올해 열매를 맺게 됐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EMLSI는 기술 로열티로 약 30억원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 세계, 특히 중국 쪽 휴대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의 매출이 급등했고, 애초 예상했던 30억원의 기술 로열티가 4배가량 늘어나 120억원 정도를 받게 됐다. 이미 EMLSI는 상반기에만 48억원의 기술 로열티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관계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사내 유보할 수 있게 돼 재정이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흥 부사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며 “기존 노키아 매출이 제로 상태로 바뀌고, 많은 팹리스업체가 힘들어지면서 EMLSI 역시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말했다.

실제 EMLSI는 지난 2008년 257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09년 102억원의 매출에 그쳤다. 다만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2분기까지 EMLSI는 이미 181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EMLSI는 현재 저전력 에스램(SRAM)과 슈도에스램(PSRAM)을 생산해 휴대폰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디램(DRAM) 역시 개발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글로벌 스마트폰업체와 DRAM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기는 하다.

무엇보다 EMLSI는 90나노 공정을 통해 경쟁사 대비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설계기술이 뛰어나 제품 수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흥 부사장은 “올해 전체 12억개가량의 시램시장에서 1억개가량을 EMLSI가 만들었고, 우리에게 기술 로열티를 주는 업체가 1억개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3억개가량을 시장에 공급해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흥 부사장은 EMLSI가 매출 500억원가량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올 초에는 400억원을 예상했지만, 중국에서 밀려드는 일감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여기에 EMLSI는 몇 년 전까지 사업적 파트너였던 노키아와 인연을 새로 맺을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2010-08-20 헤럴드경제]

## 가비아 자회사 KINX, 코스닥상장 예심 청구

국내 유일의 중립적 인터넷망연동(IX) 사업자인 케이아이엔엑스(KINX·대표 이선영)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지난 달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KINX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17%를 유통하는 인터넷연동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41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 가비아(079940)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INX는 도곡, 가산, 분당, 상암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스팅, 인터넷 미디어, 웹하드 등 대용량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대형 사업자가 주요 고객이다.

KINX는 지난해 매출액 150억원, 영업이익 24억원(영업이익률 16%), 순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주당 예정 공모밴드는 6900원~75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49억7000만원에서 54억원이다. 상장주선인은 하나대투증권이다.

[2010-10-04 헤럴드경제]

## 엑트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코스닥시장은 9월 세 번째 주에 엑트를 포함한 총 8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함 금년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은 총 80社임

회사명: 엑트  
구분: 벤처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업종: 전자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연성회로기판  
매출액: 65,141  
세전이익: 2,178  
순이익: 2,213  
자본금: 6,000  
공모예정총액: 8,000~9,200  
주당예정발행가: 2,000~2,300  
액면가: 500  
사업연도: 09.1.1~09.12.31

## 아이앤씨, LG電 옵티머스원에 DMB칩 '독점' 공급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원에 DMB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6일 아이앤씨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휴대폰용 DMB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에 모두 납품한다"며 "특히 이번 LG전자 옵티머스원 전량에 우리 회사의 DMB칩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LG전자에 옵티머스원 외 많은 휴대폰에 DMB 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원의 생산량을 명확히 알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만큼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DMB칩 시장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옵티머스원은 LG전자가 마련한 보급형 스마트폰으로서 가격경쟁력이 좋은 편인데다 이동통신사 3사 모두에 출시되기 때문에 유통경로도 다양하게 확보해 놓았다.

또 안드로이드 2.2(프로요) 버전을 탑재했으며 북미와 유럽지역 90여개국 120개 통신사를 통해 출시된다.

한화증권 김창진 연구원은 "옵티머스원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에서 팔고 있고 해외에서는 90여개국 판매를 확보했기 때문에 팔 곳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국내 휴대폰용 DMB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용 DMB 시장에서는 60~70%를 점유하고 있다.

[2010-10-06 뉴스핌]

## 에너지솔루션즈, 휴세스와 지역난방 열원개발 MOU

에너지 절약전문 코스닥기업인 에너지솔루션즈는 지난 14일 휴세스와 지역난방 열원개발 및 공급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휴세스는 삼천리 계열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에너지솔루션즈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은 휴세스가 맡게된다.

에너지솔루션즈측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 사업 진출을 추진했으나 수급처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쪽 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0-09-16 이데일리]

## 에센테크, 헨리사에 115억 볼밸브 공급계약 (상보)"냉매볼밸브 中시장 점유율 25% 기대"

에센테크는 유럽 3위의 냉동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헨리테크에 114억8400만원 규모의 냉매용 볼밸브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에센테크는 "유럽·미주지역에 판매를 해 오던 냉매용 볼밸브를 중국내 헨리테크사의 마케팅 조직을 이용, 중국·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확대해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지역·다국적기업의 냉매용 볼밸브 생산기지가 있는 곳으로 경쟁이 심한 시장 중 하나"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내 냉매용 볼밸브 수요의 25%까지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런던금속거래소(LME) 시세가 큰 폭으로 올라 이에 따른 판매가가 변동됐다"며 "수익구조가 상당 기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센테크는 "당사는 황동봉·구리가공 업체인 대창·서원과 각별한 관계에 있어서 경쟁사에 비해 우월한 조건으로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며 "LME시세 변동에 따른 원재료 재고확보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10-09-30]

## 스타코, 국내 첫 공업화주택 인증 취득

스타코(주)가 국내 첫 공업화주택 인증을 취득했다. 국토해양부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공업화주택인 '크루저형주택(Cruise Housing System)'이 3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업화주택이란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을 조립한 뒤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삽입(Infill)해 공동주택 등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 이번에 첫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크루저형 주택은 철재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차음재, 내부마감,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유람선의 객실처럼 만들어졌다.

벽체와 천정 옥실 등도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졌다.

공업화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공사기간이 빠르고, 각종 비용절감효과도 큰 만큼 크루저형 주택이 중소형 주택에 대거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300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업화 주택은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만큼 공사기간이 기존주택에 보다 5개월 빠른 14개월 정도면 지을 수 있다. 이 때 자재비와 인건비 또한 3.3㎡당 89만6000원 정도 줄일 수 있고, 설계와 감리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3억원 가량의 설계·감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보유하면 건설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저형 주택은 장기전세,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건기연 자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인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크루저형 주택은 5년간 특허권을 보유하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2010-09-03]

## 인화정공, 코스닥 입성

선박 엔진용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화정공이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1999년 1월 설립된 인화정공은 선박 엔진이나 발전설비, 기계설비 등에 필요한 대형부품을 주로 생산한다. 실린더나 플레이트 등이 주력 생산 제품이다. 현재 인화정공은 두산엔진·STX메탈·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선박업체에 엔진 부품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 외 세계 주요 엔진제조사인 마키타·미쓰비시 등과도 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에 받은 결과, 120만주 모집에 약 1조8000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들어왔다. 경쟁률은 약 582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2만6000원이었다.

